

“광주시, 부실 기업과 155억 투자 협약”

신수정 시의원 “문화산업 투자 협약 일부업체 자본 잠식” 이정환 시의원 “2015년 이후 국비 반납 1000억 육박”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한 업체 가운데 일부가 부실기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광주시가 2015년 이후 쓰지 못한 채 반납했거나 반납할 처지에 놓인 국비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은 15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달 14일 시가 투자협약을 한 일부 업체가 자본 잠식 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애니메이션·모바일게임 3개 업체, 문화산업 2개 업체와 투자규모 155억원, 일자리 창출 203명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광주 3곳에 조성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30억원 투자와 30명 고용 협약을 한 P사는 최근 3년간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다. 기업 평가 업체 크레탑(CRETOP) 분석 결과 기업등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단계’(CCC)였다. 또 기업 평가 업체 나이스(NICE) 분석에서는 산업활동성과 규모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50억원 투자에 55명 고용을 약속한 S사도 기업등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단계’였고, 나이스 분석은 아예 없었다. 현재 직원도 3명에 불과했다.

이 밖에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G사도 최근 3년간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였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8억원 적자였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정환(민주·광산5) 의원은 “광주시가 2015년 154억9000만원, 2016년 161억8000만원, 지난해 482억7000만원의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했다”면서 “관련 사업이 2015년 178개, 2016년 164개,

지난해 189개로 3년간 531개에 이른다. 울타리도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110억 원(0.8%)이 미사용 반납될 처지다”고 꼬집었다. 또 “반납액 중 상당수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경제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 긴급복지 지원, 지방투자촉진, 전자식품 육성 등에 쓰여야 할 예산만 200억원을 훌쩍 넘겼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경제 분야 93억원, 복지 분야 15억원을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에 월세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2016년 43억 4233만원에 이어 지난해 22억8946만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지방비 부담이 적은 매칭사업이



신수정 시의원 이정환 시의원 김광란 시의원

고, 일부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문제 대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감소하는 녹지 면적의 대체녹지 마련 ▲공공시설 개발 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에 입각한 빗물 집투·저류능력을 회복시키는 물순환 구조 개선 ▲택지 개발에 따른 유발 학생 대처 방안 ▲공원조성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공원 접근성 관련 계획 등을 5대 의제로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돈 불고기 드시고 건강하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5일 보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성축협(조합장 방복철)과 함께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배식봉사를 펼쳤다. 이날 농협은 우리 돼지 ‘한돈’의 소비촉진과 지역사회공헌을 겸해 한돈 삼겹살과 목살로 수육과 불고기를 만들어 식사를 준비했다.

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추가 지원

1400농가에 42억

전남도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2배로 늘려 추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당초 700농가 21억원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려 1400농가에 4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

혔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말·가금류 8종과 사슴·양·말·토끼·오소리 등 기타 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 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를 농가당 300만 원 수준에서 보조 지원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NH농협은행,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5곳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953농가에서 4139만4000마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123농가에서 보험금 233억 원을 지급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646농가 73억3700만 원, 돼지 133농가 100억9100만 원, 닭 243농가 47억 2400만 원, 오리 90농가 10억 5900만 원, 기타 11농가 1억 2400만 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애인 동승 위탁모 장애인주차장 이용해야”

차영수 전남도의원 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과 동승한 위탁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1·사진)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이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장애인과 동승한 위탁모(가정)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만이 장



아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사업자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종종 장애인을 돌보는 위탁모에게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지적이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그리고 장애인 위탁모(가정)와 같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소방관 2명중 1명 ‘건강 이상’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광주지역 소방관 1202명 중 55.9%인 672명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았다. 전남 역시 2천 340명 중 47.4%인 1110명이 유소견 또는 요(要)관찰 등 이상 진단을 받았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전국 총 4만3000명으로 이 중 62.5%인 2만6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았다.

일반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203만명 중 22.4%(45만명)가 이상 진단을 받아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2.8배에 달했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도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전국 평균 22만805원)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 선포식

20일까지 ‘푸른 광주의 날’

광주시는 15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푸른 광주의 날’ 행사를 연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해 지난 1995년 10월 설립된 거버넌스 기구다. 협의회는 매년 창립 시기에 맞춰 푸른 광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메인행사는 18일 오후 2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 선포식’을 비롯해 ▲생태문화 마을 만들기 10주년 기념 포럼·토론회(19일 오후 3시 시청 5층 회의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박람회(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야외음악

당) 등이 마련됐다.

또 15일 ‘제4회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세미나(오 후3시 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위한 세미나(16일 오후 3시 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17일 오후 7시 청소년센터)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론회 등도 열린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20일 오전 9시 한새농업생태공원에서 열리는 ‘한새농 개구리는 버 배는 날’ 행사와 20일 오전 10시 푸른길·광주전 ‘제4회 빛가람자랑이 친선경기 대회’, 27일 오후 2시 푸른길 일원 ‘푸른길 만물(萬物)장’ 등이 결

합된다. 문의 062-613-4170.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